

◆ 國內外 情報 ◆

日 電力업계, 海外資材調達 유럽도 擴大요구 - 프랑스, 영국 자국의 기자재조달 확대 요청 -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도 일본 전력 9社에 대해 자국의 기자재조달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일본의 日刊工業新聞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美무역 대표부는 무역장벽연차보고서에서 일본전력 9社가 연료 이외에 외국산 기자재 구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으며 프랑스는 최근 일본의 해외조달이 미국에 편중돼 있다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프랑스는 일본이 비즈니스 글로벌 파트너십(BGP)에 의거, 프랑스산 전력기를 더 많이 조달해줄 것을 특히 강조했다.

영국도 일본에 자국산 기자재 수입을 확대해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올해엔 판촉전의 일환으로 영국과 일본의 관련메이커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지난달 론젤 산업무역부장관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 전력 9社에 대해 자국산 기자재 수입 확대를 주장해오고 있다. 론젤장관은 최근 일본 전력회사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실적이 미국에 너무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지난 92년부터 자국에서 對日전력자재수출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력기기메이커를 일본에 파견하는 등 對日수출확대를 꾀해 왔다. 이의 일환으로 프랑스 전력공사(EDP)는 해외자재조달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東京電力에 배선·발전전문가를 파견키로 했다. 이 자리에선 東京電力의 해외자재조달 기준을 묻는 동시에 자국산 기자재 우수성에 대한 설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 전력 9社의 기자재 수입실적은 프랑스에서 지적하듯이 對美수입이 90년과 91년이 각각 1억8천만달러와 3억2천만달러 그리고 92년이 3억9천만달러로 압도적인 세이를 차지했다. 최근 3년동안 對美수입세어는 84%~8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對日 변압기 · 送電用 케이블 등 수출확대 好機

— 日 전력업계, 海外서 資材 조달 확대계획 수립 —

日本 전력업계가 94년의 설비투자를 대체로 억제하는 반면 해외 자재조달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해외 물자조달부문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일본 電力各社の 해외 자재조달은 그간 美國등지로 부터 조달규모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급변 해외 조달 확대계획은 무역불균형 시정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이보다는 저렴한 해외제품을 수입해 투자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급변에 발표된 해외조달규모는 도쿄전력이 전년대비 188% 증가한 약 590억엔에 이르고 중부전력은 250억~300억엔을 계획하고 있는 등 한결같이 전년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조달품목으로는 공통적으로 光케이블 및 변압기, 송전용 케이블 등 低價의 범용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도쿄전력의 경우는 그외에 발전용수차, 범용 대형제품, 원자로 및 가스터빈의 주요부품을, 중부전력의 경우는 가스터빈을 구매하게 된다.

한편 장기불황, 냉해 등의 영향으로 일본의 전력수요가 감퇴되고 있는 가운데 조달장비의 개보수 등에 애프터서비스 문제 등으로 이제까지 해외조달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급변의 해외 조달확대는 대외압력보다는 자체필요에 의한 요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들 업계의 조달품목에는 우리기업이 진출가능한 범용저가의 변압기, 송전용 케이블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전력설비 자재시장 진출확대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전력 등은 조달계획이 확정되면 나고야무역관에 조달품목 및 조달신청서를 송부하고 있어 이를 통해 우리기업이 對日輸出을 모색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 日本 電力業界의 해외 資材조달과 설비투자계획

(단위 : 억엔, %)

| 기업명 | 해외 자재 조달 | | 설비투자계획 | |
|--------|----------|---------|---------|-------------|
| | 93년도 실적 | 94년도 계획 | 94년도 계획 | 전년대비 |
| 東京전력 | 205(3.2) | 590 | 16,924 | -30(-0.2) |
| 關西전력 | 149(4.1) | 173 | 7,574 | 370(4.8) |
| 中部전력 | 209(4.3) | 250~300 | 8,020 | 844(12.5) |
| 東北전력 | 42(-) | 49 | 5,052 | -1(0) |
| 九州전력 | 40(0.9) | 40이상 | 4,712 | -690(-12.8) |
| 北海道전력 | 8(1.1) | 약 8 | 1,238 | 32(2.7) |
| 四國전력 | 4.7(0.7) | 약 5 | 1,223 | -417(-25.4) |
| 오키나와전력 | 0.5(-) | - | 518 | -100(-16.2) |

註 : 1. 해외자재조달의 ()는 자재조달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2. 설비투자계획의 ()는 전년대비 신장률

獨, 電氣 · 電子産業 올해도 정체 - 바닥권은 일단 벗어나, 製品價格 하락 계속될듯 -

지난해 전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던 독일 전기·전자산업이 현재 바닥권을 벗어났으나 올해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재 및 반제품 수요는 지난 가을이래 안정국면에 들어선 반면 소비재 수요는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전기·전자산업 수주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개월간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했으나 내수는 4.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서독지역의 지난해 전기·전자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6.5% 감소했으나 올해에는 작년보다 1~2%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독일 전기·전자협회는 업체간 경쟁격화로 가격하락세가 계속되어 기업의 수익률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수익률 악화는 유럽내 환율변동 뿐아니라 설비가동률 저하에도 기인하고 있는데 업체의 평균 설비가동률은 92년 말의 82%에서 93년말에는 79%로 떨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구서독지역 종합원 수는 지난 2년간 15만명이 감소, 작년말 현재 93만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2만~2만5천명이 추가로 감원될 전망이다. 한편 구동독지역은 지난해 종업원 수가 2% 줄어든 7만 4천명선인데 올해에도 작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재의 생산은 작년에 9%나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측정, 자동화, 정보, 자동차관련 전기기술, 에너지 생산 및 기기는 전년대비 10~15% 감소했다. 소비재 생산은 전년대비 4.6%가 감소했는데 이중 6% 감소한 전기 가정용품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가전제품은 지난 91년중 생산실적이 90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이후 작년에는 감소폭이 3%에 그쳐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다.

작년 구서독지역 전기·전자산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4% 감소한 DM2,030억으로 생산보다는 감소폭이 작았다. 내수판매는 7% 이상 감소했으나 수출은 92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구동독지역 전기·전자산업은 설비가동률이 76%에 달했으며 매출액도 16% 증가한 DM 85억, 생산은 5.1%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구서독지역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부문 발주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도 부진한 편이다. 구서독업체의 매출액중 수출비중은 30%에 달하고 있으나 구동독지역은 10%에 그치고 있다.

최근 독일 전기·전자업계는 동남아시아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동남아 현지의 교통, 통신 및 에너지 공급,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많은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對日 통신시장 개방압력과 관련 독일 전기·전자협회장은 일본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교통시설 및 통신장비에 대한 높은 수준의 Local Content 요구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독일 전기·전자산업 현황 (93년)

| 구 분 | 현 황 |
|---------|-----------------------|
| 설비 가동률 | 79% |
| 종업원 수 | 구서독 93만명, 구동독 7만4천명 |
| 생산 증가율 | 투자재 -9.0%, 소비자재 -4.6% |
| 매출액 증가율 | 구서독 -4%, 구동독 -16% |
| 수출 비중 | 구서독 30%, 구동독 10% |

獨, 電氣드릴 需要 꾸준히 增加 — 消費者들 주로 값싼 一般電氣드릴 購買경향 —

독일은 91년 전년대비 2.9% 증가한 DM 4억800만의 전기드릴 총생산실적을 기록했지만, 92년에는 2.6% 감소해 DM 3억9,700만의 생산실적을 보였다.

먼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경 13mm 이하 전기드릴의 생산실적을 보면 91년 DM 2억 1,900만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한데 이어 92년에도 DM 2억 1,600만으로 전년대비 1.6%의 생산액 감소를 가져 왔다. 직경 13mm 이상의 전기드릴도 91년 전년대비 4.7%의 생산액 감소를 보인 이후 92년 다시 1.3% 감소했다. 다만 축전지를 사용하는 전기드릴의 경우에는 91년 전년대비 11.4% 증가했으나 92년 4.9%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액의 감소추세는 93년들어 반전되고 있는데 가정용 전기드릴의 경우 93년 9월 현재 DM 2억3,700만의 생산액을 보여 이미 전년 생산액을 넘어섰다.

독일의 91년 전기드릴 총수입액은 DM 3억500만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고 92년에는 DM 3억4천만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축전지를 사용하는 전기드릴의 수입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전기드릴을 축전지를 사용하는 전기드릴, 압축공기드릴, 일반 전기드릴로 대별해 보면 92년의 경우 각각 34%, 27%, 39%의 수입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전지를 사용하는 전기드릴의 경우 91년에 전년대비 24%의 수입증가를 보인데 이어 92년에도 47%가 증가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2년 국별 수입비중을 보면 스위스 40%, 중국 20%, 일본 13%, 영국 10% 등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1년 114%, 92년 285% 증가한데 이어 93년에도 약 140%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경쟁국인 대만과, 홍콩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각각 5.6%, 2.6%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90년에 DM 15만의 對獨 수출실적을 보인 이후 통계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반 전기드릴의 수입실적을 보면 91년 약 DM 1억3,400만을 수입해 전년대비 7.8%의 증가를 보였으나 92년에는 DM 1억3,200만으로 약 1%의 감소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93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92년의 국별 수입비중을 보면 스위스 57.4%, 영국 13.9%, 일본 6.9%, 이탈리아 6.8%의 순이다. 특히 92년 들어서부터 불가리아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극동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극히 작아 중국 1.6%, 대만 0.2%를 보이고 있고 한국산은 아직 진출되지 않고 있다.

• 수입실적

▲ 축전지 사용 전기드릴

(단위 : DM천)

| 국 별 | 1991 | 1992 | 93.1~6 |
|-------|--------|---------|--------|
| 스 위 스 | 27,009 | 46,880 | 16,437 |
| 중 국 | 6,122 | 23,590 | 28,741 |
| 일 본 | 23,560 | 15,507 | 10,937 |
| 영 국 | 5,612 | 12,051 | 6,023 |
| 미 국 | 6,492 | 6,969 | 2,917 |
| 대 만 | 5,232 | 6,575 | 4,835 |
| 홍 콩 | 4,019 | 3,076 | 180 |
| 계 | 79,740 | 116,955 | 72,770 |

▲ 일반 전기드릴

(단위 : DM천)

| 국 별 | 1991 | 1992 | 93.1~6 |
|---------|---------|---------|--------|
| 스 위 스 | 80,355 | 76,000 | 16,462 |
| 영 국 | 21,372 | 18,470 | 8,693 |
| 일 본 | 10,154 | 9,198 | 4,405 |
| 이 탈 리 아 | 10,142 | 9,009 | 2,493 |
| 불 가 리 아 | - | 5,081 | 4,160 |
| 미 국 | 1,097 | 4,509 | 2,416 |
| 중 국 | 2,691 | 2,100 | 1,824 |
| 대 만 | 549 | 265 | 912 |
| 홍 콩 | 1,692 | 107 | 57 |
| 계 | 133,650 | 132,231 | 44,767 |

▲ 압축 공기드릴

(단위 : DM천)

| 국 별 | 1991 | 1992 | 93.1~6 |
|-----|--------|--------|--------|
| 계 | 91,570 | 91,544 | 39,393 |

〈자료 : 독일 연방통계〉

註 : 압축공기드릴의 국별 통계치는 나와 있지 않음.

압축공기드릴의 경우 수입실적은 91년에 전년대비 25%가 증가했으나 그 이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산이 국제적으로 품질이 인정되어 내수시장을 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은 92년 총 DM 4억3,500만에 달하는 각종 전기드릴을 수출했는데 축전지를 사용하는 전기드릴 9.6%, 압축공기드릴 50.4%, 일반 전기드릴 40%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수출총액으로 볼때 91년에 전년대비 1.2% 증가한데 이어 92년에는 5%가 증가했는데 특히 압축공기드릴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축전지를 사용하는 드릴과 일반 전기드릴은 연도별로 기복을 나타낸 반면, 압축공기드릴의 경우 91년 0.7%, 92년 5.8% 증가했으며 93년에도 약 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꾸준한 수출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 전기드릴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양국은 92년 축전지를 사용하는 전기드릴 수출의 32%, 압축공기드릴의 67%, 일반 전기드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기종 전기드릴의 일반수입관세는 4.5%인데 한국은 GSP 혜택을 받아 관세부담이 없다. 한편 대만은 일반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반면 싱가포르, 홍콩, 중국등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GSP 혜택을 받고 있다.

독일의 전기드릴에 대한 국내수요는 최근 몇년간 계속 증가해 왔는데 92년의 국내시장 규모는 DM 3억 수준에 이른다. 전반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전기드릴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독일 소비자가 비싼 임금을 지불하면서 수선공을 부르기 보다는 직접 집안을 수리하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압축공기드릴은 강한 穿孔力을 갖는 만큼 콘크리트, 화강암 등에 사용이 적합하며 일반 전기드릴은 목재와 금속 등에 적합하다. 물론 망치작용을 할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일반 전기드릴도 시중에 나와 있지만, 강한 재질에 구멍을 뚫을때 작업자가 힘을 가해 밀어주어야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압축공기드릴은 천공시 특별히 힘을 가해 밀어줄 필요가 없고 단시간내에 구멍을 뚫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회전속도가 일반 전기드릴보다는 느려 2단기어를 통해 회전속도를 부가적으로 높여주어야 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 전기드릴의 경우 손잡이의 스위치를 누르는 정도에 따라 회전속도가 변속되므로 사용이 간편한 이점이 있다. 그밖에 모든 기종의 전기드릴이 예를 들어 나사를 뺄때 사용할 수 있도록 좌우회전방향을 전환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이렇게 상이한 장단점을 갖는 전기드릴은 기종에 따라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압축공기드릴이 개당 DM 200~300, 일반 전기드릴은 DM 150~200의 소매가격을 보여 압축공기드릴이 일반 전기드릴보다 배 정도 비싸다. 최근들어 나온 일반 전기드릴보다 천공력이 강한 압축공기드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값이 비싸고 전문가용으로 인식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는 주로 일반 전기드릴을 구매하는 경향이다.

상품인도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현지 수입상에 따르면 주문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후 상품을 인도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대금결제는 대부분 L/C를 통해 이루어 지지만 극동에서 수입하는 경우 총수입액의 2~3%가 현지 A/S제공을 위해 공제된다. 이는 지리적 여건상 생산업체가 즉시 부속품을 공급할 수 없으므로 건축자재 및 공구 판매상을 겸하고 있는 현지 수입상이 A/S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저렴한 가격으로 단시일내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세일품의 경우 1회 주문량은 보통 4천 개이다. 반면 지속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정규상품의 경우는 2만~3만개이다.

현재 독일에서 중·고가품으로 대부분 독일산(Bosch, Metabo, Fein, Black & Decker, AEG)과 일본산(Hitachi, Makita)이 판매되고 있다. 반면 여타 극동산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독일시장에 진출해 있는데 현재 독일의 수입상은 저가품 수입선을 대만에서 중국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홍콩의 TUEV-Rheinland지사를 통해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거의 對獨 수출실적이 전무한 형편이나 현재 극동으로부터의 축전지용 전기드릴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품목을 중심으로 독일시장 진출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미얀마, 電壓 安定器 수요 증가세 - 잦은 電壓변동으로 사용 필수적, 年間需要 50만대 -

미얀마는 국민소득 200달러 내외의 세계 최후진국으로 전력, 통신, 도로, 항만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

그중 전기사정은 심각한 상태로 공업용은 물론 일반 사용분도 충족시키지 못해 수도인 양곤지역만 하더라도 특정 VIP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제한공급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또한 공급되는 전기의 질이 균일하지 못해 원래 230V로 공급돼야 하는 전압이 대부분 200V 이하로 불규칙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100V 이하로 떨어지는 등 계속적인 전압변동으로 전기기구의 사용 불가능 및 잦은 고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 국 별 | 90/ 91 | 91/ 92 | 92/ 93 |
|-----------|--------|--------|--------|
| 중 국 | 150 | 220 | 350 |
| 일 본 | 120 | 180 | 250 |
| 말 레 이 시 아 | 95 | 175 | 250 |
| 태 국 | 80 | 155 | 180 |
| 싱 가 포 르 | 70 | 120 | 160 |
| 홍 콩 | 100 | 150 | 200 |
| 총 계 | 615 | 1,000 | 1,390 |

<자료 : 미얀마 중앙통계국>

註 : 국경무역 불포함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 및 사무실에서는 사용중인 전기기구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기구 보호하기 위해 전기기구 1대당 1대꼴의 전압안정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제품의 수요증가에 따라 계속적인 전압안정기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얀마 통계의 미미로 정확한 수치를 알수 없으나 관련 현지 수입상들에 의하면 현재 연간 50만대 이상의 전압안정기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중·소형 전압안정기의 경우 가내 수공업 형태로 민간부문에서 생산, 저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93년중 생산량은 300VA와 500VA가 각각 3천대 3,500대, 그리고 1, 3KVA와 5KVA가 2,500대와 2천대이다.

중·소형 전압안정기는 정부가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민간부분이 전량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일본·말레이시아등이다.

중국산은 미얀마산과 동일한 품질 및 저가로 국경무역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실제 공식무역을 통한 것보다 밀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것이 2~3배 이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말레이시아의 경우 L/C Base 및 위탁판매 제도를 이용, 현지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가격이 미얀마 및 중국산에 비해 5~10배 이상 고가이지만 성능이 뛰어나 고가의 전기·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수입이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별한 수입관리 제도는 없으며 관세는 50%의 증가세(현지화 지불)가 부과된다.

미얀마 중소형 전압안정기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급품 시장은 미얀마산과 중국산이 고급품 시장은 일본산 및 말레이시아산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얀마는 시장이 협소해 유통구조도 간단하나 각국별로 수입 유통경로가 다르다.

미얀마산은 현지 제조 및 소매장 직판(혹은 소비자가 제조업체에 직접 주문) 위주이며 중국산은 총 수입량의 30%는 국경 공식무역으로, 나머지는 국경 밀무역으로 유입, 소매상에 전시 판매된다. 일본산은 대부분 LC Base로 수입판매되며 말레이시아산은 수입의 절반가량을 L/C Base로, 나머지는 위탁판매등 특수무역을 통해 현지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까지 미얀마 시장에 진출한적이 없어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현지 민간 수입상들에 대한 인지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지 민간수입업자들은 한국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산이 고품질로 인식되고 있어 기존 고가품인 일본, 말레이시아산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있으면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 전압안정기 수출을 위해서는 경쟁국인 일본·말레이시아산보다 저가로 일정기간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 수입상의 외화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L/C Base를 고집하는 것보다 위탁판매 및 선수입 후수출 제도를 과감히 이용하거나, 현지 유망 무역상과 연계, 먼저 농산물이나 임산물등을 수입해 외화를 보전해 주고 그 외화로 한국산 전압안정기를 수입토록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泰國, 關稅引下 단행

— 電氣 · 機械等 417品目 —

태국정부는 최근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조치를 단행했다.

현지소식통에 의하면 태국정부는 최근 각의에서 전기·기계·정밀기계 등을 대상으로 HS분류 84, 85, 90류의 총 417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안을 채택,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대상품목의 평균세율은 종래의 28%에서 14%로 대폭 인하되었다. 태국재무부발표에 의하면 이번 세계개혁으로 단기적으로는 64억바트의 재정수입감소와 무역적자의 확대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산업의 코스트절감과 외자에 의한 투자촉진 ▲서포팅 인더스트리의 진흥 ▲국내 소비의 확대와 경제성장에 의한 소비세 증수등 플러스효과가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및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의 합의사항에 대응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인 관세인하율은 92년 9월에 각의 결정된 관세간소화 구상에 거의 합치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요 세율은 다음과 같다.

▲일렉트로닉스부품 78품목 : 0~35%에서 1%로 조정 ▲기계·전력·철도관련 37품목 : 5~40%에서 5%로 조정 ▲중간재 94품목 : 현행 10% 이상은 10%로 인하 ▲완제품 208품목 : 최고 60%에서 20~30%로 인하

상기 417품목 가운데 228품목은 즉시 인하하며 나머지 189품목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또 가전제품 등 최종제품가운데 사치품으로 분류된 58품목에 대해서도 현행 30%를 넘는 것은 최고세율이 30%까지 인하된다.

이들 대상품목의 지난해 수입액은 대략 1200억바트로 전체의 11%를 점하고 있는데 특히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일렉트로닉스 업계로부터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번 정부결정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태국공업연맹의 한 관계자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렉트로닉스부품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수출이 9천억바트를 넘는데 비해 태국은 2100억바트에 불과하며 국제표준화기구가 인가한 공장수도 말레이시아에 180개가 있는데 반해 태국에는 15개 밖에 없어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기계제조업자협회의 관계자도 “이번의 조치가 태국의 서포팅 인더스트리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19개 품목 關稅인하 - 발전기등 20%서 2%로 인하 -

브라질 정부는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1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 시행키로 했다.

브라질 재무부측은 휘발유발전기, 자동차교류발전기에 대해서 관세율을 20%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브라질정부는 이밖에도 알루미늄 캔에 대한 관세도 낮추는 동시에 볼리비아맥주 수입에 대한 쿼터 규제도 철폐키로 했다.

브라질 재무부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 건축자재, 맥주, 포장 및 세척용품 등 브라질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자국기업들이 판매가격을 계속 올려 정부의 물가안정계획에 큰 차질이 야기됨에 따라 관세인하 및 쿼터제한 폐지 등을 통해 값싼 수입품을 도입,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재무부측은 또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부당한 가격인상조치를 막는데 큰 효과가 있다면서도 이번 관세인하조치로 실업사태가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對과테말라 중소형 發電設備 시장개척 有望 — 민간베이스 자금지원, 대외經協기금 활용방안 검토할만 —

94/95 회계연도중 對과테말라 중소형 수력발전설비, 송전설비, 케이블류 등의 수출시장 개척이 유망시되고 있다.

과테말라 재무부 외자교섭 담당 차관보실 및 경제기획청, 과테말라 전력공사의 소식통에 의하면 과테말라 정부는 현재 전국의 전기보급률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지방 소도시급 이하는 전기보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이나 정부 재정규모의 영세성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용에 예산확보가 어려워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형 화력·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방의 수량이 풍부한 강, 하천을 이용한 중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년에는 Chulac 지역과 Tableros Verapaz 지역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재원확보를 위한 차관도입 교섭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파리클럽 회원국,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와의 외채 제휴상 및 신규 차관제공 교섭시에도 중소규모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3건이 반영되고 있으며 전력공사의 주변기기 및 케이블류 수입을 위한 자금 등이 교섭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계 당국자들과의 접촉결과 과테말라 정부로서는 산악지대와 수량이 풍부한 강, 하천이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만이 현실에 맞는 대안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이러한 프로젝트의 추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과테말라를 대상으로 한 중소형 수력발전설비 및 주변기기 시장개척이 유망시되고 있는데 문제는 1개의 소형 발전설비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이 대략 1천만~1,500만弗 내외이고 중규모의 경우 2천만~3천만弗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 과테말라는 재정 규모의 영세성으로 소요자금마저도 외자도입 또는 공급자 금융조건으로 조달하려는 입장에 있다.

이와 관련 과테말라 정부는 하나의 대안으로 내·외국인 민간자본의 전기생산 및 상업화 참여 개방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대안은 과테말라 민간기업은 가능할지 모르나 외국인 업체로서는 수도권 지역외에는 정부보증조건이 아닌한 채권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게 일반적인 정설로 이 조건은 외국인 기업으로서는 수용키 어려운 조건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민간베이스의 자금지원 조건 또는 정부차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발전플랜트 수출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유망시 되고 있다.

中國정부, 전자산업관련 대기업 육성 계획 - 국가 근간산업으로...유망기업 선정해 특별지원 계획 -

중국은 전자산업을 근간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대기업을 적극 육성키로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전자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1만8천여개에 달하나, 작년 한해동안 총생산량은 200억弗로 세계 주요 대기업의 생산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국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중국의 GATT 재가입에 대비한 이들 조치는 중국의 전자산업 종사기업을 일명 중국 IBM 또는 중국 Sony와 같은 대기업으로 육성해 국가의 근간산으로도 발전시킨다는 것이 주요요지이며, 이러한 대기업 육성을 위해 중국 정부는 유망기업을 선정해 이 기업들의 발전을 위한 특별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정대상기업에는 Shanghai Audio & Video Ltd., Legend Group, Founder Group 같은 연간 수익이 2억3천만弗를 초과하는 중국내 8대 기업이 포함되어있다. Shanghai Audio & Video Ltd.는 작년 수익이 4억1천만弗이 넘는 가장 큰 기업이며 Legend Computer Group은 2대 대기업으로 작년의 수익은 해외분을 포함 1억4,900만弗에 달했다.

중국정부는 이들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합병 및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VCR, 이동통신 장비, HDTV와 같은 첨단제품의 발전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규모 첨단기술 기업육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연구기관들과 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美, 체크에 대형발전소 건설추진 - 체크컨소시엄과 합작...내년초 착공 예정 -

美 GE社 등으로 구성된 美-체크컨소시엄이 체크현지에 10억달러 규모의 발전소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유럽이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내년초에 착수돼 35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 이중 130메가와트는 소비하고 나머지는 현지 에너지망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프라하 북서부의 리트비노프정유회사 인근에 위치하게 될 이 발전소 건설에는 첨단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기술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E, 텍사코 디벨롭먼트, 미션 에너지, 나이콤 시너제틱스 등의 美기업들과 리트비노프정유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체모페트르, 모스텍아 우엘나 스폴 등 체크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10억달러의 건설자금중 30%는 자체조달하고 나머지 자금은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컨소시엄은 이를 위해 국제은행들에게 자금제공을 요구하는 동시에, 체크정부에도 채무보증을 요청해 놓고 있다.

日, 에어컨 海外生産 확대 - 日 9大메이커 13개국에 33工場 -

일본 주요 에어컨 메이커들의 해외생산이 크게 늘고 있다. 주요 에어컨 메이커 9개사의 해외생산 기지는 지난 3월말 현재 13개국 33개 공장에 이르고 있다. 일본 전파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93년 이들 공장에서 생산된 에어컨은 가정용과 사무실용을 모두 합쳐 620만대 이상에 이르고 있다. 전파신문 자체 조사결과 이들 해외공장의 고용창출효과는 2만명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장진출이 많은 지역으로는 태국·중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인접국들로 나타났고 최근 선호되고 있는 지역 역시 중국·태국·말레이시아 순으로 밝혀졌다. 향후 이들 해외진출 메이커들은 신규투자보다는 기존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현지 생산국에서의 소비 외에 수출에 대한 비중도 점차 높인다는 구상이다.

일본 에어컨 메이커가 최초로 해외생산을 개시했던 것은 지난 92년 마쓰시타(松下)電器의 대만공장 설립이다. 그 후 각 메이커들이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벨기에·필리핀 등지로 진출했다. 87년 이후에는 거의 해마다 한건 이상씩 신규 해외생산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 90년에는 6개 공장, 91년 3개 공장, 92년 2개공장, 93년 3개공장이 해외에서 문을 여는 등 최근 5년 동안 전체 에어컨 해외공장의 45%가 설립됐다.

메이커별로는 산요電機가 가장 많은 9개의 해외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마쓰시타電器가 7개, 미쓰비시(三菱)重工業이 4개공장, 미쓰비시(三菱)電機가 3개 공장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태국이 9개공장, 중국이 5개공장, 말레이시아 4개, 인도네시아 3개 등으로 이들 4개국에 22개 공장이 몰려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60%를 넘어서고 있다.

상품별로는 가정용 스플릿 에어컨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 밖에 와이드형과 사무실용 패키지 에어컨들이 대부분이다. 냉·온풍 팬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콤프레서에 대해서는 로터리 타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스크롤 형태로 간혹 생산되고 있다.

한편 전파신문이 24개 해외공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제품의 거의 대부분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기업의 절반인 12개로 나타났다. 수출을 행하고 있는 나머지 기업 중 상당수는 동남아시아·북미·유럽·중근동·중국·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역수입하고 있는 경우는 5개회사 6개공장으로 응답공장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기존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인근 국가로 생산설비 이전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향후 이들 해외공장은 자국 소비는 물론 해외수출을 거의 대부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中美 전력공급시스템 통합추진

— 멕시코, 中美경제통합 일환으로 —

멕시코가 중남미지역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중미지역의 전력공급 시스템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와 중미경제통합은행(BCEI)은 중미지역의 전력공급시스템 통합과 화석연료사용 발전소의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작업에 175만달러를 투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페드로 아스페 멕시코 재무장관과 호세마누엘 파카스 BCEI총재는 최근 개막된 미주개발은행 연례 회의에 앞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의향서에 따라 양측은 두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타당성조사 프로젝트에 각각 50만달러, 125만달러를 각각 출자할 예정이다.

印, 發電분야 外國人투자 적극 유치계획 - 100% 지분참여 허용 등 인센티브 부여 시행중 -

인도 전력청은 극심한 전력 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도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발전분야 신규투자에 대한 5년간 세금 면제
- 전력발전 프로젝트 수입관세를 30% → 20%로 인하
- 전력발전 분야에 외국인의 100% 지분 참여 허용

이에 따라 외국기업으로는 美國의 Enron Power Development Corporation, 독일의 Siemens, Kraftwerk & Aulageruban AG, 러시아의 Technopromexport, 일본의 Marubeni, 이스라엘의 Eisenberg Group이 단독 또는 인도기업과 합작으로 인도 전력발전 생산설비 분야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인도의 전력수급 상황과 인도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을 감안할 때 우리기업도 인도 발전 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전류 Lock형 고압교류 가스개폐기 개발 - 전력사 배전선 정지 방지, 단축 가능 -

일본의 高岳製作所는 金邦電氣(주)와 공동으로 과전류 Lock형 고압교류 가스개폐기를 개발 하였다. 이 개폐기는 지중배전선에서 전력공급이 되는 수용가의 인입구에 설치되는데, 인입구에서 차단기 까지 인입 케이블에서 지락사고 및 단락사고가 발생할때 수용가 회로를 절제한다. 이 결과 전력회사의 배전선의 정전을 피하거나 또는 정전시간의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준규격은 (株)全關東電氣工事協會 규격 「과전류 Lock형 고압교류가스개폐기(지중전용)와 JIS-C-4601, JIS-C-4605, JIS-C-4607, JIS-C-4609」로 하였다.

개폐기의 본체는 스테인레스 강철 탱크로 정격 가스압력 70KPa의 SF₆를 봉입하고, 에폭시 수지제 붓싱을 상하로 배치 하였으며, 상부 부싱은 고압 캐비네트의 전원측과 접속하고, 하부 부싱은 부하측 단말과 접속하였다. 또한 개폐기 내부에는 지락사고 및 단락사고 검출용의 ZCT, ZPD, CT×3을 장치하고 제어장치도 접속하였다.

본 가스개폐기는 고압 캐비네트 제3회로(수용가 회로)에 설치하여 기존 설치된 몰드지스콘과의 교체가 가능, 방향성 SOG기능에서 전원측의 지락사고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 만일의 가스압 저하에서는 개폐조작 및 끌어내는 동작의 Lock기능을 준비, 동작시험시의 AC100V 전원질체는 장치내부에서 자동절체, 지락사고, 단락사고의 외부 경보출력을 준비하는 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장전류를 대폭 억제하는 배전용 한류기 개발 - 95년도 전력회사 수요 및 메리트, 비용 검토후 시행 -

일본의 電力中央研究所는 배전선의 단락고장전류를 대폭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아-크 구동식 한류기」를 개발하였다. 스위치는 접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크의 주행현상을 이용하여 통상 20배 이상의 전류를 고속으로 한류하고, 전압의 순간적인 저하를 방지하는 것으로 배전기자재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 할수가 있다. 동 연구소는 앞으로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소형화를 추진하고, 실용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는 전력회사의 수요와 메리트, 비용에 관하여 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다. 배전용 변전소에서 일반가정으로 6,600V의 고압선으로 전기가 송전되므로 일본의 배전설비의 공급신뢰도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뇌와 태풍 등 기상에 의한 배전선의 단락고장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일본의 자연환경 및 경제성면에서 볼때 어려운 문제이다.

고압선에서 단락전류가 발생하면 배전선에 통상 흐르는 부하전류의 20~30배가 올라 수천 암페어 이상의 단락고장전류가 흐른다. 이 때문에 전압의 순간적인 저하가 발생하여 광범위한 수용가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장이 발생한 장소에서는 배전선을 구성하는 전선 및 애자, 개폐기 등의 기자재가 손상하고 복구작업에 긴 시간을 요하는 사태의 발생도 생기게 된다.

어쨌든 이러한 단락고장 발생시에 그의 영향을 적게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의 대책으로 현재 단락 고장전류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고려되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억제기술을 사용하면 배전선로와 직렬로 사용되는 기기의 과전류강도의 저감도 가능하게 되며 배전용기기의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이러한 단락고장전류를 억제하기 위하여 아-크의 주행현상에서 착안 「아-크 구동식한류기」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아-크가 단락고장전류와의 사이에서 움직이는 전자력에 의하여 고속으로 구동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구성요소는 아-크구동식 전류소자를 중심으로 사고검출기, 고속 스위치, 보조차단기, 한류 임피던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리는 사고검출기가 단락고장전류를 검출하여 빠른 속도로 스위치를 열면 그의 접점간에 발생하는 아-크가 저항체성의 전극을 움직이게 하여 저항치를 증가시키고 한류하게 한다. 한류한 것에서는 저항체를 길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저항체를 굴곡 형상으로 하여 아-크의 走行路를 分岐・分割하고 소형화 하였다. 이 한류기를 사용하여 최대 고장전류(12,500A)에서 3상한류시험을 한 결과 단락고장 발생에서 약 100분의 2초로 한류를 개시하였다. 한류기가 안된 경우의 고유 파고치는 31,100A를 약 3분의 1인 12,500A까지 한류가 가능하다. 이 연구소는 이 한류기를 배전용변전소내에 「Bank 병용」 및 배전용변전소의 출구 등에 설치하므로 설비의 보강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배전계통의 운용을 도모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 會員社 動靜 ◆

現代重工業(株), 말레이시아 변압기 수주

現代重工業(株) (代表:金正國) 중전기사업본부에서는 4월초 말레이시아로부터 총 1천3백만달러 상당의 변압기 16대를 수주했다.

이 변압기는 지난 93년 5월에 말레이시아 전력청이 실시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275KV와 132KV 급 변전소에 설치될 변압기 16대를 일괄도급 방식으로 수주한 것이다.

말레이시아 전력청에서는 지난 93년 5월 공개입찰을 통해 현대중공업, 일본의 메이텐사, 마루베니사, 이탈리아 안살도사, 인도의 벨사, 스웨덴의 ABB사를 대상으로 10개월간 기술평가 작업을 한 바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품질 및 기술면에서 경쟁사보다 앞서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수주한 변압기들은 내년 7월까지 제작을 완료하여 말레이시아 전력청에 인도할 예정이다.